

김민재, 세리에A '데뷔골' .. 수비도 '만점'

헤더골...나폴리 4-0 승리 견인
공중볼 경합·태클 100% 성공률
공 소유권도 9번이나 빼앗아

한국 축구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는 손흥민(토트넘)보다도, 황희찬(울버햄프턴)보다도 빠르게 득점포를 가동했다.

김민재는 22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노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A 2라운드에서 몬차를 상대로 소속팀 나폴리의 4-0 대승에 마침표를 찍는 골을 터뜨렸다.

후반 48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문전 헤더로 마무리해 골망을 울렸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튀르키예(터키)를 떠나 이탈리아 무대에 입성하며 '빅리그'가 된 김민재의 세리에A 데뷔골이자 시즌 첫 득점이다.

김민재는 득점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센터백임에도 유럽 5대 빅리그에서 뛰는 '코리아 리거'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시즌 마수걸이 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세계 최고 골잡이 중 하나로 인정받은 손흥민은 득점 없이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과 함께 EPL 무대를 누비는 '황소' 황희찬도 도움 1개만 올렸다.

세리에A보다 개막이 이른 EPL은 지금까지 3라운드를 치렀다. 김민재는 불과 2경기 만에 골 맛을 봤다.

'빅리그 한국 선수' 중 김민재보다 먼저 득점한 선수는 독일 마인츠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뿐이다.

이재성은 20일 분데스리가 3라운드 아우스쿠부



22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노에서 열린 이탈리아 세리에A 2라운드 SSC 나폴리 대 AS 몬차의 경기에서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25·가운데)가 후반 48분 헤딩으로 득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르크와 원정 경기에서 마인츠에 2-1 승리를 안기는 결승골을 책임졌다.

큰 키와 당당한 체구를 가진 김민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득점을 모색하는 선수다.

첫 프로팀인 전북 현대에서 2시즌 동안 3골을 넣었다.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2021-2022시즌 페네르바체(튀르키예)에서 1골을 기록했다.

A대표팀에서도 42경기 3골을 기록 중이다. 김민재가 이날 본업인 수비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득점은 더 빛났다.

그는 공중볼 경합(4차례)과 태클(2차례)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9번이나 공 소유권을 빼

앗았는데, 이는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현지 언론도 김민재에 대해 호평했다.

유로스포츠 이탈리아판은 김민재에게 팀에서 2번째로 높은 평점 7을 부여하면서 "김민재는 특출난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잘 읽었다. 결국 골 세리머니도 펼쳤다"고 적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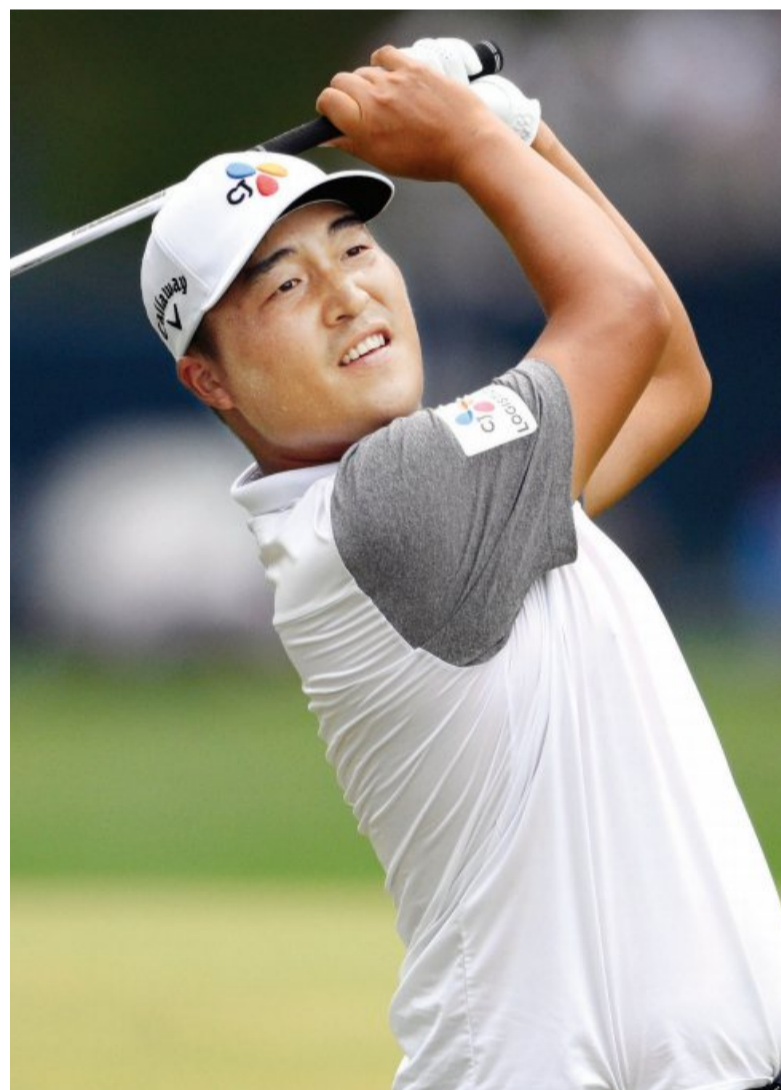
수비수들의 공격 전개 관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차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김민재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민재는 개막전에서도 잘했다"면서 "좀 더 경기에 관여하기를 바란다. 그는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성재



이경훈

임성재·이경훈 PGA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

이경훈 BMW 10언더 극적 합류
임성재는 페덱스컵 10위로 확정

이경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극적으로 합류했다.

이경훈은 22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윌밍턴 컨트리클럽(파71·753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BMW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친 이경훈은 페덱스컵 순위 26위에 자리해 상위 30명이 나가는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했다.

이경훈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훈은 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31위를 기록, 상위 30명이 나가는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좌절됐다.

플레이오프 1차전을 공동 20위로 마쳐 페덱스컵 순위 33위였던 이경훈은 이번 대회 3라운드까지도 예상 순위가 35위에 불과해서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대회 마지막 날 6언더파를 몰아치면서 PGA 투어 데뷔 첫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이뤘다.

1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작성한 이경훈은 2번 홀(파3)과 3번 홀(파5), 4번 홀(파4)까지 4연속 버디로 경기를 시작했다.

이어 8번 홀(파4)에서 3.7m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전반에만 5타를 줄였다.

후반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했지만, 16번 홀(파4)과 17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이날 출전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인 6언더

파로 경기를 마쳤다.

이경훈과 함께 임성재(31)도 페덱스컵 순위 10위로 4년 연속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버디 5개와 보기 5개로 이븐파 71타를 친 임성재는 최종합계 7언더파 277타로 공동 15위에 올랐다.

반면 이번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27위였던 김주형(20)은 최종합계 2오버파 286타로 공동 54위를 기록, 페덱스컵 순위 34위로 떨어져 최종전 진출이 어렵게 좌절됐다.

7오버파 78타로 부진한 김시우(27)도 최종합계 10오버파 294타를 기록, 최하위(67위)로 대회를 마쳤다. 페덱스컵 순위도 57위에 그쳤다.

패트릭 캔틀레이가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로 스코트 스티븐스(이상 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KIA, 키움·LG 원정 뒤 안방서 두산과 2연전

T 타이거즈 전망대

흔들리는 키움 상대로 승리해
4위 싸움 위한 발판 마련해야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가을을 위해 '세밀함'이 필요하다.

KIA는 비로 한 경기 선 지난주 3승 2패를 기록했다. 1위 독주 중인 SSG와의 경기를 가져오는 등 패보다는 승리가 많은 한 주였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어렵게 경기들을 풀어가면서 체력 소모도 많았고,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눈앞에서 놓치기도 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황대인과 박동원의 방망이, 박찬호를 중심으로 한 내야의 실수 연발이 눈에 띄었다. 지난주 5개의 실책이 기록됐고, 런다운 상황에서의 아쉬운 수비도 나왔다.

KIA는 17일 SSG를 상대로 4-3의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2승 10패로 절대 열세였던 상대, 무엇보다 김광현이 출격했던 만큼 귀한 승리였지만 내용은 좋지 못했다. 1회부터 나성범이 김광현을 상대로 3점포를 날렸지만 이후 7회까지 김광현 공력에 실패했다.

8회에는 불펜 난조 속 박찬호와 류지혁의 실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6.1이닝을 무실점으로 지켰던 파노니의 승리가 날아갔다.

실책으로 동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박찬호가 8회 말 결승타로 '결자해지'는 했지만 21일 KT 원정에서 다시 한번 실책을 남겼다. 1사 만루에서 이닝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순간 기록된 실책 뒤 KIA의 추격 의지를 꺾는 심우준의 쉐기 스리런이 나왔고, 경기는 3-11 대패로 끝났다.

KIA는 19일 NC전에서 짜릿한 끝내기 순간을 경험했다.

9-9로 맞선 10회말 1사 1-2루에서 이창진이 NC 마무리 이용찬의 초구 포크볼에 반응했다. "공을 맞히겠다는 생각에 배트를 짧게 잡았다"던 이창진은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돼 그라운드를 돌았다.

전날 11회 9실점이라는 충격의 역전패를 지운 홈런이자 이창진의 지독했던 8월 부진 탈출을 알리는 장면이었다.

이창진이 부진의 바닥을 찍으면서 타선의 고민이 하나 해결됐지만, 황대인과 박동원의 답답한 흐름은 여전하다.

8월 13경기에서 55타석에 들어선 황대인은 6안타로 0.12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12차례 삼진



이창진

으로 물러났고, 4개의 병살타도 남겼다. 박동원도 지난주 2개의 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치는 등 최근 10경기 타율이 0.154다.

그나마 위안은 불펜 좌완 듀오의 활약이다. 지난주 이준영과 김정민의 활약으로 승리를 챙긴 KIA는 정해영의 복귀도 앞두고 있다.

또 결정적인 순간 터지는 홈런도 KIA의 힘이 다. KIA는 지난주 6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의미 있는 스리런 3방이 눈에 띄었다.

홈런을 강타한 나성범, 경기를 끝낸 이창진 또 최형우가 '천재'이었던 NC 김영규를 상대로 스리런을 날리면서 KBO리그 통산 3번째 3700루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통산 4번째 15년 연속 10홈런도 동시에 작성했다.

KIA는 이번 주 키움, LG와의 원정경기 뒤 안방에서 두산과 주말 2연전을 치른다. 수도권 4연전, 특히 키움과의 결과가 중요하다.

KIA는 올 시즌 키움, LG에 각각 5승 7패, 3승 6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키움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5연패 중인 키움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부진하면서 4위 KT에 반 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6경기 차 밖에서 4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KIA가 KT가 아닌 키움과 자리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른 상황이 됐다. 흔들리고 있는 키움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4위 싸움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